

영암벌 ‘슈퍼 GT’ 한계를 달린다

GT란

스포츠카 성능 최대 개조



5월 18~19일 영암 코리아 인터내셔널 서킷

그랜드투어링카(Grand Touring car)의 줄임말로, ‘장거리 여행에 적합한 고성능 자동차’를 뜻한다. 원래는 뒷게가 없는 레이싱카라는 의미였지만, 지금은 대륙횡단을 비롯해 장거리 여행에 적합하도록 개발된 고성능 자동차를 가리킨다. 1950년대 이전에는 자동차의 개조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레이싱카와 스포츠카를 구분하지 않았다. 그래서 당시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자동차 경주용으로 레이싱카를 만든 뒤 똑같은 모델을 일반인에게도 판매했다. 하지만, 경주용으로 개발된 모델들은 엔진의 성능을 높이는 데만 주력한 나머지 일반도로에서 운행하기에는 매우 불편했다. 이 약점을 해결하기 위해 승차감을 높이고, 짐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모델이 바로 GT다. 1960년대에 등장한 란치아 아우렐리아나 에스텐마틴 DB시리즈 등이 대표적인 GT모델들로, 최근에는 포르쉐 복스터, 재규어 XJS, 애스턴 마틴 DB7 등 초호화 스포츠카들이 GT의 계보를 잇고 있다. 슈퍼GT는 이들 GT를 개조, 성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경주용 차량인 셈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슈퍼카 40대 시속 320km 속도 경쟁

세계 3대 슈퍼카 경주대회 중 하나인 슈퍼GT(Grand Touring car)가 오는 5월 18일부터 이틀간 전남 영암의 코리아 인터내셔널서킷에서 열린다. 이 서킷은 한국에서 유일하게 F1경주가 가능한 ‘그레이드1’ 수준의 경주장으로, 매년 가을 ‘코리아 F1그랑프리대회’가 치러지고 있다. 올해 처음 한국에서 치러지는 슈퍼GT는 5월 18일엔 예선 그리고 19일엔 결선이 진행된다. 슈퍼GT는 글로벌 자동차메이커들이 생산·판매하고 있는 고성능 자동차를 자체 레이스 규정에 맞춰 최고속도 320km로 달릴 수 있도록 튜닝한 경주용 양산차들의 경기다. F1대회가 고속으로 달릴 수 있도록 최적화된 포뮬러 차량들의 경쟁이라면 슈퍼GT는 일반에 판매되고 있는 고성능 스포츠카를 튜닝, 극한까지 성능을 끌어올려 속도경쟁을 벌이는 대회다. 슈퍼GT는 500마력짜리 차량이 출전하는 GT500과 300마력짜리가 경쟁하는 GT300 등 2개 클래스(급)로 나뉘며, 매 경주마다 최고 속도가 서로 다른 GT500클래스 차량과 GT300클래스 차량이 함께 뒤섞여 달리며 박진감 넘치는 질주를 선보인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개최되는 이번 슈퍼GT에서는 람보르기니, 페라리, 포르쉐, 애스턴 마틴, 벤츠, BMW, 아우디, 코벳 등 9개 유럽 자동차메이커와 닛산, 도요타, 혼다, 스바루 등 4개 일본 브

랜드 그리고 소량 생산 전문 업체 등 모두 15개 업체가 내놓은 40대의 슈퍼카가 경쟁한다. 이번 대회에는 특히 튜닝을 통해 시속 300km를 넘는 괴물로 재탄생한 현대 제네시스 쿠파가 GT300클래스에 참여한다. 국내 레이싱팀인 ‘솔라이트 인디고’가 한국 레이싱팀으로서 최초로 슈퍼GT에 출전하며, 독일 F3대회에서 두 차례 우승한 최명길(29) 선수가 파트너인 오일기(36)선수와 함께 제네시스 쿠파 드라이버로 참여, 해외 유명 드라이버들과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경쟁을 벌이게 된다. 영암 코리아슈퍼GT에서는 메인 경주 외에도 겔그를 등이 출연하는 K팝 공연이 열리며, 미니 모터쇼와 레이싱카 동승체험, 카트 체험, RC가 경주, 드리프트 대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내 최대규모의 프로 자동차 경주대회인 ‘슈퍼레이스’도 사전행사로 함께 치러진다. 슈퍼레이스에는 50대 이상의 경주용 차량이 참여하며 류시원, 김진표 등 연예인 드라이버들이 출전, 자웅을 겨루게 된다. 1994년 일본에서 시작된 슈퍼GT는 지난 2000년 말레이시아 세팡서킷에서 첫 국제경기를 치렀으며, 2004년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도 대회가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일본과 말레이시아에서 총 8차례의 정규전과 1차례의 이벤트레이스가 열렸다. 올해 영암대회는 비정규전 성격의 올스타전으로 진행되며, 내년 5월 영암대회는 정규 시리즈대회로 치러질 예정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지난해 일본에서 열린 슈퍼GT 경기 전에서 경주에 참여할 40대의 슈퍼카들이 포르쉐를 선두로 굉음을 울리며 서킷을 질주하고 있다.

▼지난해 일본 후지서킷에서 열린 슈퍼GT대회에서 결승 스타트를 위해 서킷 그리드에 정렬해 있는 GT머신들을 관람객들이 살펴보고 있다.

F1과 차이점

드라이버 두명이 경주...버스 타고 생생 관람

슈퍼GT와 F1은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경주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F1은 특수하게 제작된 경주 전용머신(Formula)으로 대회를 치르지만 슈퍼GT는 일반인에게 판매되는 고성능 스포츠카를 튜닝해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차량의 성능이나 가격도 크게 다르다. Formula는 배기량 2400cc 짜리 8기통 엔진을 사용해 780마력을 내며 최고속도는 시속 355km에 이른다. 가격만 대당 100억 원대를 호가한다. 이에 비해 슈퍼GT차량은 GT500의 경우 500마력, GT300의 경우 300마력의 힘을 내며 최고속도는 시속 320km다. 가격은 비교적 저렴한 대당 40억 원대다. 또, F1은 한 경주장에서 같은 시간대에 비슷한 성능을 지닌 F1전용차량만이 달리지만, 슈퍼GT는 500마력짜리 GT500클래스 차량과 300마력짜리 GT300클래스 차량이 한 경주장에서 서로 뒤섞여 속도경쟁을 벌인다. 게다가 슈퍼GT에서는 질주하는 머신들 사이로 관람객을 실은 ‘사파리 버스’가 함께 주행을 하며 실제 경주에 참여하는 듯한 느낌을 전해준다. 운전자도 F1은 한 명의 드라이버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대의 Formula를 타고 경주를 치르지만 슈퍼GT는 두 명의 드라이버가 한 대의 GT차량을 번갈아 운전하는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보 약, 홍 삼 은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
·마음에 평안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062-369-9227



두충오가피
활기찬 삶! 생활의 활력소!
60포 → 90,000원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 환